

[2019년 서울시 9급 국어 영역별 출제 현황]

대단원	소단원	문항 수
문 법	언어와 국어	1
	형태론	1
	문장론	1
	어문 규정	7
	중세 국어	1
	소계	11
어 휘	한자 성어와 속담	1
	소계	1
비문학	추론적 독해	1
	소 계	1
문 학	현대 문학	5
	고전 문학	2
	소 계	7
합 계		20

1. 외래어 표기 용례로 올바른 것은?

- ① dot -다트
- ② parka-파카
- ③ flat -플래트
- ④ chorus-코루스

정답 ②

[정답 풀이]

parka-파카: '에스키모가 입는, 후드가 달린 모피 옷'을 뜻하는 'parka'는 '파카'로 표기한다.

[오답 풀이]

- ① 다트(x) ⇨ 도트(○): '점 또는 물방울 무늬'를 뜻하는 'dot'는 '도트'로 표기해야 한다.
- ③ 플래트(x) ⇨ 플랫(○): '주로 속도 경기에서, 선수가 기록한 시간이 초(秒) 아래에 우수리가 붙지 아니하는 일/내림표/한 가족을 같은 층에 배치하는 형식의 집합 주택'을 뜻하는 'flat'은 '플랫'으로 표기해야 한다.
- ④ 코루스(x) ⇨ 코러스(○): '합창/합창단/합창대/포크 송이나 대중가요에서 반복되는 부분'을 뜻하는 'chorus'는 '코러스'로 표기해야 한다.

◆[정채영 국어 문법] 389쪽 주의해야 할 외래어 표기

2. <보기>의 ㉠~㉣을 현행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표기한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 다락골	㉡ 국망봉
㉢ 낭림산	㉣ 한라산

- ① ㉠-Dalakgol
- ② ㉡-Gukmangbong
- ③ ㉢-Nanggrimsan
- ④ ㉣-Hallasan

정답 ④

[정답 풀이]

'한라산'의 발음은 [할:라산]이며, 이를 로마자로 옮기면 'Hallasan'이다. 바르게 표기되었다.

[오답 풀이]

- ① ㉠ Dalakgol(x) ⇨ Darakgol(○): 다락골의 발음은 [다락골]이며, 된소리되기는 표기에 반영하지 않아야 하며, 'ㄹ'은 모음 앞에서는 'r'로, 자음 앞이나 어말에서는 'l'로 적어야 한다. 이를 반영하여 로마자로 옮기면 'Darakgol'이 된다.
- ② ㉡ Gukmangbong(x) ⇨ Gungmangbong(○): '국망봉'의 발음은 [궁망봉]이다.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이를 로마자로 옮기면 'Gungmangbong'가 된다.
- ③ ㉢ Nanggrimsan(x) ⇨ Nangnimsan(○): '낭림산'의 발음은 [낭:님산]이며

음운 변화가 일어날 때에는 변화의 결과에 따라 적어야 하므로, 이를 로마자로 옮기면 'Nangnimsan'이 된다.

◆[정채영 국어 문법] 396쪽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3. <보기>는 황진이가 지은 시조이다.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끼리 짝지은 것은?

<보기>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 한 (㉠)를 버혀 내어	
(㉡) 니불 아래 서리서리 너털다가	
어론 님 오신 날 밤이여든 구뵈구뵈 켜리라.	

- | | | |
|---|----|----|
| | ㉠ | ㉡ |
| ① | 허리 | 春風 |
| ② | 허리 | 秋風 |
| ③ | 머리 | 春風 |
| ④ | 머리 | 秋風 |

정답 ①

[정답 풀이]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낱말을 순서대로 제시하면 '허리'와 '春風'이다. 겨울밤의 긴 시간을 잘라서 보관해 두었다가 그리워하던 임과 함께 지내게 될 밤에 이어 붙여 그 시간을 길게 만들고 싶다는 표현을 고려하면 첫 번째 빈칸에는 '허리'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또 임과 함께 보내고 싶은 시간의 속성을 감안하면 동짓달과 대조되는 '春風'이 두 번째 칸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정채영 국어 문학] 320쪽 황진이,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

[더 알아보기] 황진이, '冬至入들 기나긴 밤을~'

1. 해제: 임을 기다리는 여인의 그리움과 애절한 사랑을 호소력 있게 표현한 황진이의 시조이다. 시간을 사물화하여 그리움과 기다림이라는 심리적 사실을 구체화 시킴으로써 생생한 인상을 주고 작품에 신선감을 부여하고 있다.

2. 현대어 풀이

동짓달 긴긴 밤의 한가운데를 베어 내어 / 봄바람처럼 따뜻한 이불 속에다 서리서리 넣어 두었다가, / 정든 임이 오신 밤이면 굵이굵이 펼쳐 내어 그 밤이 오래오래 새도록 이으리라.

4. 다음 중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불이 꺼져 간다.
- ② 그 사람은 잘 아는척한다.
- ③ 강물에 떠내려 가 버렸다.
- ④ 그가 올 듯도 하다.

정답 ③

[정답 풀이]

떠내려가_ㄹ가_ㄹ버렸다(x) ⇨ 떠내려가_ㄹ버렸다(○): '떠내려가 버리다'는 "물 위에 떠서 물결을 따라 옮겨 가다."라는 뜻을 나타내는 합성 동사 '떠내려가다' 뒤에 보조 동사 '버리다'가 이어진 형식이다. '떠내려가다'가 합성 용언이므로, 한글 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에 따라, '떠내려가_ㄹ버렸다'와 같이 써야 한다.

[오답 풀이]

- ① 불이_ㄹ꺼져_ㄹ간다: 한글 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에 따라 {원칙: 불이_ㄹ꺼져_ㄹ간다/허용: 불이_ㄹ꺼져간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② 그 사람은_ㄹ잘_ㄹ아는척한다: 한글 맞춤법 제47항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에 따라 {원칙: 잘_ㄹ아는_ㄹ척한다/허용: 잘아는척한다}와 같이 쓸 수 있다.
- ④ 그가_ㄹ올_ㄹ듯도_ㄹ하다: 한글 맞춤법 제47항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에 따라 '올_ㄹ듯도_ㄹ하다'와 같이 띄어 쓰는 것이 원칙이다.

◆[정채영 국어 문제종결자] 76쪽 61번 띄어쓰기

[더 알아보기] 띄어쓰기 규정

조사는 앞말에 붙여 쓴다.	어디까지나, 거기도, 웃고만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아는 것, 먹을 만큼, 떠난 지, 할 수 있다, 뜻한 바
단위성 의존 명사는 띄어 쓴다.	웃 한 벌, 조기 한 손, 북어 한 켤, 버선 한 켤
수는 '만(萬)' 단위로 띄어 쓴다.	십이억 삼천사백오십육만 칠천팔백구십 (12억 3456만 7890)
이어 주거나 열거하는 말은 띄어 쓴다.	열 내지 스물, 사과, 배 등속
보조 용언은 띄어 씀을 원칙으로 하되, 경우에 따라 붙여 씀도 허용한다. 다만, 앞말에 조사가 붙거나 앞말이 합성 용언인 경우, 그리고 중간에 조사가 들어갈 적에는 그 뒤에 오는 보조 용언은 띄어 쓴다.	꺼져 간다(꺼져간다), 아는 척하다(아는척하다) 놀아만 나는구나, 떠내려가 버렸다, 울 듯도 하다
•성과 이름은 붙여 쓰고 덧붙는 호칭어는 띄어 쓴다. •성과 이름을 분명히 구분할 필요가 있을 땐 띄어 쓴다.	충무공 이순신 장군, 남궁억(남궁 억),

5. 맞춤법 사용이 옳바르지 않은 것으로만 묶인 것은?

- ① 웃어른, 사흔날, 베갯잇
- ② 닐리리, 남존녀비, 해택
- ③ 적잖은, 생각건대, 하마터면
- ④ 흠뻑, 미미하다, 선율

정답 ②

[정답 풀이]

• 닐리리(x) ⇨ 닐리리(○):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닐리리'의 'ㄴ'은 'ㄴ'로 읽지만 표기는 'ㄴ'로 해야 한다. 'ㄴ'의 'ㄴ'은 '어머니'의 'ㄴ'과 음가가 다르므로 이를 고려하여 'ㄴ'로 적는 것이다. 'ㄴ'은 'ㄴ' (ㄴ, ㄴ, ㄴ, ㄴ)와 결합하면 '어머니'에서의 [ㄴ]처럼 경구개음 [ㄴ]으로 발음되지만, '닐리리'의 'ㄴ'에서는 구개음화하지 않은 'ㄴ', 곧 치경음 [n]으로 발음된다. 이를 고려하여 '닐리리'에서는 전통적인 표기대로 'ㄴ'로 적는다.

• 남존녀비(x) ⇨ 남존여비(○): 겹두사처럼 쓰이는 한자가 붙어서 된 말이나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가 'ㄴ' 소리로 나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남존-여비'는 엄밀히 말하면 합성어는 아니지만, '남존'과 '여비'가 각각의 단어와 같이 인식되어 결합한 구조이므로 두음 법칙을 적용하여 '남존여비'로 적는다.

• 해택(x) ⇨ 해택(○): 계, 례, 예, 폐, 해의 'ㄱ'은 'ㄱ'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 '해'는 현실에서 [해]로 발음되는 일이 있다. 그러나 'ㄱ'의 발음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할 수 없고 철자와 발음이 반드시 일치하는 것도 아니다. 발음이 변화한 것과는 달리 표기는 여전히 'ㄱ'로 굳어져 있으므로 '해택'으로 적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 웃어른(○): '아래, 위'의 대립이 없는 단어는 '웃'으로 발음되는 형태를 표준어로 삼는다.

• 사흔날(○): 끝소리가 'ㄹ'인 말과 탄 말이 어울릴 적에 'ㄹ' 소리가 'ㄷ' 소리로 나는 것은 'ㄷ'으로 적는다.

• 베갯잇(○):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에서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사이시옷을 받치어 적는다.

③ • 적잖은(○): 어미 'ㄴ' 뒤에 'ㄹ'이 어울려 'ㄹ'이 될 적과 'ㄴ' 뒤에 'ㄹ'이 어울려 'ㄹ'이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생각건대(○):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 하마터면(○): '하마터면'은 소리대로 적는 부사에 해당한다.

④ • 흠뻑(○): '흠뻑'은 아이를 배지 아니한 몸을 의미하고, '흠뻑'은 배우자나 형제가 없는 사람을 의미한다.

• 미미하다(○): 한 단어 안에서 같은 음절이나 비슷한 음절이 겹쳐 나는 부분은 같은 글자로 적는다.

• 선율(○):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는다.

◆[정채영 국어 문제 종결자] 62쪽 이중 모음의 표기, 두음 법칙

[더 알아보기] 이중 모음의 표기, 두음 법칙

- 이중 모음의 표기
 - '계, 례, 예, 폐, 해'의 'ㄱ'은 [ㄱ]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ㄱ'로 적는다.

예 해택, 계수,
 - '의'나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ㄴ'은 [ㄴ]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ㄴ'로 적는다.

예 닐리리, 무늬, 닐름
- 두음 법칙
 - 단어 첫머리에 오는 'ㄴ, ㄹ'은 'ㅇ'이나 'ㄴ'으로 적는다.

예 낙원(樂園) - 쾌락(快樂)
 - 겹두사처럼 쓰이는 한자어가 결합하여 된 단어나 합성어의 경우에는 단어의 첫머리가 아니더라도 두음 법칙에 따라 적는다.

예 남존여비(男尊女卑), 신여성(新女性), 열역학(熱力学), 공염불(空念佛)
 - 모음이나 'ㄴ' 받침 뒤에 이어지는 '열, 룰'은 '열, 율'로 적는다.

예 나열(羅列), 비율(比率), 백분율(百分率)
 - 의존 명사 '년(年), 리(理, 里), 량(輛)' 등은 두음 법칙과 관계없이 본음대로 적는다.

예 팔 년, 오 리나 떨어진 곳, 여섯 량짜리 지하철

6. 밑줄 친 부분의 문장 성분이 다른 하나는?

-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 몸은 아파도 마음만은 날아갈 것 같다.
-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정답 ②

[정답 풀이]

'몸이 아프다'와 '마음이 날아갈 것 같다'는 문장이 연결 어미 '-아도/-어도'에 의해 이어졌다. '마음만'의 문장 성분은 '무엇이'에 해당하는 '주어'이다.

[오답 풀이]

- 그는 밥도 안 먹고 일만 한다: '그가 밥을 안 먹다'와 '그가 일을 하다'가 이어진 문장이다. '밥도'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다.
- 그는 그녀에게 물만 주었다: '그가 그녀에게 물을 주다'는 홑문장이다. '물만'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다.
- 고향의 사투리까지 싫어할 이유는 없었다: '고향의 사투리를 싫어하다'가 뒤에 나오는 체언 '이유'를 수식하여, 전체 문장의 관형절 역할을 한다. '사투리까지'의 문장 성분은 목적어이다.

◆[정채영 국어 문법] 115쪽 문장 성분의 종류

[더 알아보기] 문장 성분의 종류

주성분	주어	동작 또는 상태나 성질의 주체가 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누가, 무엇이
	서술어	주어의 동작, 상태, 성질 따위를 풀이하는 기능을 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어떠하다, 어찌하다, 무엇이 다
	목적어	서술어의 동작 대상이 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무엇을, 누구를
	보어	'되다, 아니다'와 같은 서술어의 필수 성분으로 기능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이/가'를 수반하며 '되다, 아니다'의 앞에 위치
부속 성분	관형어	체언(명사, 대명사, 수사)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어떤
	부사어	서술어, 관형어, 다른 부사어 등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 【찾는 방법】어떻게, 누구에게
독립 성분	독립어	문장의 어느 성분과도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문장 성분

7. 한글 맞춤법에 따라 바르게 표기된 것만 나열한 것은?

- ① 새까맣다-싹퍼렇다-셋노랗다
- ② 시뻘깁다-시허엿다-싹누렇다
- ③ 새퍼렇다-새빨깁다-셋노랗다
- ④ 시하얗다-시꺼멓다-싹누렇다

정답 ②

[정답 풀이]

② '시뻘깁다-시허엿다-싹누렇다'의 표기는 바르다. 접두사 '새-/시-, 셋-/싹-'은 뒤에 오는 말에 따라 구별된다. 된소리, 거센소리, 'ㅎ' 앞에는 '새-/시-'가, 유성음 앞에는 '셋-/싹-'이 결합한다. 이 중 '새-, 셋-'은 뒷말이 양성 모음일 때, '시-, 싹-'은 뒷말이 음성 모음일 때 결합한다. 예) 새까맣다/시꺼멓다, 새빨깁다/시뻘깁다, 새파랗다/싹퍼렇다, 새하얗다/시허엿다, 셋노랗다/싹누렇다

[오답 풀이]

- ① 싹퍼렇다(x) ⇨ 시퍼렇다(o)
- ③ 새퍼렇다(x) ⇨ 새파랗다(o)
- ④ 시하얗다(x) ⇨ 시허엿다(o)

★[정채영 국어 문법] 247쪽 접두사 '새-/시-, 셋-/싹-'의 구별

8. <보기>는 시의 일부분이다. 시의 제목으로 가장 적절한 한자어는?

<보기>

세상에는, 자신이 믿는 단단한 무엇을 위해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람과 그럴 수 없는 사람이 있다
말이 많은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짜장면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테니스에 미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유에프오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술을 좋아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중략-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

- ① 편견(偏見) ② 불화(不和)
- ③ 오해(誤解) ④ 독선(獨善)

정답 ①

[정답 풀이]

이 시에서는 두 가지의 대립적인 상황을 나열하여 세태를 비판하고 있다. '사람들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믿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다'는 시구에서 추론할 수 있는 정보는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이다. 따라서 이 시의 제목으로 적절한 것은 ① '편견(偏 치우칠 편/見 볼 견)'이다. '편견'은 공정하지 못하고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② 불화(不 아닐 불/和 화할 화): 서로 화합하지 못함. 또는 서로 사이 좋게 지내지 못함.
- ③ 오해(誤 그르칠 오/解 풀 해): 그릇되게 해석하거나 뜻을 잘못 앎. 또는 그런 해석이나 이해.
- ④ 독선(獨 홀로 독/善 착할 선): 자기 혼자만이 옳다고 믿고 행동하는 일.

9. 서로 의미가 유사한 속담과 한자성어를 짝지는 것이다. 관련이 없는 것끼리 묶은 것은?

-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狐假虎威
-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晚時之歎
- ③ 언 발에 오줌 누기-雪上加霜
- ④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目不識丁

정답 ③

[정답 풀이]

언 발에 오줌 누기: 언 발을 녹이려고 오줌을 누어 봤자 효력이 별로 없다는 뜻으로, 임시변통은 될지 모르나 그 효력이 오래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결국에는 사태가 더 나빠짐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이다. 이와 의미가 유사한 한자 성어는 '동족방뇨(凍足放尿)'이다. 한편, '雪上加霜(설상가상)'은 눈 위에 서리가 덮인다는 뜻으로, 난처한 일이나 불행한 일이 잇따라 일어남을 이르는 말이다.

[오답 풀이]

① 원님 덕에 나팔 분다: 사또와 동행한 덕분에 나팔 불고 요란히 맞아 주는 호화로운 대접을 받는다는 뜻으로, 남의 덕으로 당치도 아니한 행세를 하게 되거나 그런 대접을 받고 우쭐대는 모양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狐假虎威(호가호위): 남의 권세를 빌려 위세를 부림. <전국책>의 <초책(楚策)>에 나오는 말로 여우가 호랑이의 위세를 빌려 호기를 부린다는 데에서 유래한다.

②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소를 도둑맞은 다음에서야 빈 외양간의 허물어진 데를 고치느라 수선을 떠난다는 뜻으로, 일이 이미 잘못된 뒤에는 손을 써도 소용이 없음을 비꼬는 말. - 晚時之歎(만시지탄): 시기에 늦어 기회를 놓쳤음을 안타까워하는 탄식.

④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기억 자 모양으로 생긴 낮을 보면서도 기억 자를 모른다는 뜻으로, 아주 무식함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 - 目不識丁(목불식정): 아주 간단한 글자인 '丁' 자를 보고도 그것이 '고무래'인 줄을 알지 못한다는 뜻으로, 아주 까막눈임을 이르는 말.

★[정채영 문제종결자] 156쪽 69번 한자 성어와 속담의 연결

[더 알아두기] 한자 성어와 속담의 연결

- 甘香苦吐(감탄고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 見蚊拔劍(견문발검): 모기 보고 칼 빼기
- 鯨戰蝦死(경전하사):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 凍足放尿(동족방뇨): 언 발에 오줌 누기
- 燈下不明(등하불명): 등잔 밑이 어둡다.
- 晚時之歎(만시지탄):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 貓頭懸鈴(묘두현령): 고양이 목에 방울 단다.
- 目不識丁(목불식정): 낮 놓고 기억자도 모른다
- 相扶相助(상부상조): 백지장도 맞들면 낫다.
- 鳥飛梨落(오비이락):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
- 靑出於藍(청출어람):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
- 下石上臺(하석상대): 아랫돌 빼서 윗돌 꺾다.
- 漢江投石(한강투석):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 虛張聲勢(허장성세): 냉수 먹고 이 쏘시기
- 狐假虎威(호가호위): 원님 덕에 나팔 분다.

10. <보기>의 밑줄 친 ㉠에 해당하는 글자가 아닌 것은?

<보기>

한글 중 초성자는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로 구분된다. 기본자는 조음 기관의 모양을 상형한 글자이다. ㉠가획자는 기본자에 획을 더한 것으로, 획을 더할 때마다 그 글자가 나타내는 소리의 세기는 세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이체자는 획을 더한 것은 가획자와 같지만 가획을 해도 소리의 세기가 세어지지 않는다는 차이가 있다.

- ① ㄱ ② ㄷ
- ③ ㄴ ④ ㅈ

정답 ①

[정답 풀이]

《훈민정음》에서는 초성 문자로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기본 문자인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을 만들고, 기본 문자에 소리가 센 정도에 따라 획을 하나 또는 둘을 더하여 문자를 만드는 가획의 원리를 적용하여 'ㅋ, ㆁ, ㄷ, ㄹ, ㅂ, ㅅ, ㅈ, ㅊ, ㅌ'의 문자 9개를 만들어 내는데, 획을 더하여 만들었다고 하여 이들을 '가획자(加劃字)'라 부른다. '가획(加劃)'은 《훈민정음》해례본 <제자해>에 '성출초려고가획(聲出稍厲故加劃)'의 '가획(加劃)'을 그대로 사용한 것이다. ① 'ㄱ'은 이체자에 해당한다.

★[정채영 문제종결자] 58쪽 171번 가획자

[더 알아두기] 훈민정음의 창제 원리

1. 초성을 만든 원리: 기본자 'ㄱ, ㄴ, ㄷ, ㄹ, ㅁ, ㅂ, ㅅ, ㅇ'은 발음 기관의 모습을 본떠서 만들고(상형), 기본자에 획을 더하여(가획) 그 밖의 글자를 만들었다. 이체자는 가획의 원리에서 다소 벗어나 있는 글자로 별도로 만들었다. (총 17자)

구 분	상 형	기본자	가획자	이체자
어금닛소리(아음, 牙音)	혀뿌리가 목구멍을 닫는 모양	ㄱ	ㅋ	ㆁ
혓소리(설음, 舌音)	혀가 윗잇몸에 붙는 모양	ㄴ	ㄷ	ㄹ
입술소리(순음, 脣音)	입의 모양	ㅁ	ㅂ	ㅍ
잇소리(치음, 齒音)	이의 모양	ㅇ	ㅈ	ㅊ
목청소리(후음, 喉音)	목구멍의 모양	ㅇ	ㅎ	ㅇ

2. 중성을 만든 원리: ‘ㄱ, ㄴ, ㄷ’는 각각 ‘하늘[天], 땅[地], 사람[人]’의 모습을 본떠 만들고, 이들끼리 결합하여 그 밖의 글자를 만들었다. (총 11자)

기본자	기본자의 결합	초출자	재출자
ㄱ, ㄴ, ㄷ	ㄱ+ㄴ	ㄴ, ㄷ	ㄴ, ㄷ
	ㄱ+ㄷ	ㄴ, ㄷ	ㄴ, ㄷ

3. 중성을 만든 원리: 중성부용초성에 따라 중성은 초성을 다시 썼다.

11. 밑줄 친 부분의 품사가 다른 하나는?

- ① 옷 색깔이 아주 밝구나!
- ② 이 분야는 전망이 아주 밝단다.
- ③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
- ④ 그는 예의가 밝은 사람이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일반적인 동사/형용사 판별 기준에 따르면 현재형 어미 ‘-는다/-다’가 붙을 수 있으면 동사이고, 그렇지 않으면 형용사이다. “내일 날이 밝는 대로 떠나겠다”에서 ‘밝는’은 ‘밝는다’처럼 ‘-는다/-다’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므로, 동사임을 알 수 있다. ‘밝다’는 동사로도 형용사로도 쓰이는데, ‘밤이 지나고 환해지며 새날이 오다.’의 뜻으로 쓰일 때는 동사이지만, 문장에서 형용사로 쓰이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를 구별해서 파악해야 한다.

[오답 풀이]

①, ②, ④에 쓰인 ‘밝다’는 모두 형용사이다.

★[정채영 문제종결자] 34쪽 96번 서로 다른 품사 ‘밝다’

[더 알아보기] 동사와 형용사의 구별

구분 기준	동 사	형용사
의미 차원	주어의 동작이나 과정을 나타냄. •그가 일어난다. (동작) •피가 솟는다. (과정)	주어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냄. •맛이 달다. (성질) •꽃이 아름답다. (상태)
현재 시제 선언 말 어미 ‘-는다/-다’	○ •밥을 먹는다. •물이 흐른다.	× •꽃이 아름답는다. •그는 기본이 슬프다.
현재 시제 관형사형 어미 ‘-는’	○ •산을 보는 나	× •아름답는 꽃
의도, 목적의 어미 ‘-려, -러’	○ •영화를 보려 한다. •영화를 보러 간다.	× •그는 착하려 한다. •그는 착하러 간다.
명령형 어미 ‘-어라’와 청유형 어미 ‘-자’	○ •철수야, 일어나라. •철수야, 우리 일어나자.	× •철수야, 즐거워라. •철수야, 우리 즐겁자.
진행형 ‘고 있다’	○ •그가 가고 있다.	× •그녀가 예쁘고 있다.

12. <보기>의 () 안에 들어갈 가장 알맞은 말을 차례로 나열한 것은?

<보기>

지난여름 작가 회의에서 북한 동포 돕기 시 낭송회를 한 적이 있다. 시인들만 참석하는 줄 알았더니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나한테도 한 편 낭송해 달라고 했다. 내가 (㉠) 소리를 듣게 된 것이 당혹스러웠지만, 북한 돕기라는 데 핑계를 둘러대고 빠질 만큼 뻔뻔할지까지는 못했나 보다. 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거역할 수 없는 명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 아니었을까. 그 무렵 나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 김용택은 내가 좋아하는 시인 중의 한 사람일 뿐 가장 좋아하는 시인이라고는 말 못 하겠다. 마찬가지로 ‘그 여자네 집’이 그의 많은 시 중 빼어난 시인지 아닌지도 잘 모르겠다.

㉠

㉡

- ① 원로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
- ② 아쉬운 서로가 만족하게 될 실리가
- ③ 시인 잠깐의 수고로 동포를 도울 수 있다는 것이
- ④ 입에 발린 원로들에 대한 예의가

정답 ①

[정답 풀이]

제시된 글의 맥락을 참고하면 시 낭송회에 참석하는 화자가, 각계 원로들도 자기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를 낭송하는 순서가 있다고 들었을 때 당혹스러웠다고 했으므로 ㉠에는 ‘원로’가 들어가는 것이 적절하다. ㉡에는 김용택의 ‘그 여자네 집’이라는 시에 사로잡혀 있었다는 정보를 토대로 문맥을 참고하여 ‘낭송하고 싶은 시가 있었다는 게’를 넣는 것이 적절하다.

★[정채영 필살기 모의고사] 26쪽 3회 17번 박완서, ‘그 여자네 집’

[더 알아보기] 박완서, ‘그 여자네 집’

‘그 여자네 집’은 우리 민족의 시련기에 상처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다룬 소설이다. ‘그 여자네 집’에 등장하는 역사적 사건들, 즉 일제 강점기의 징병과 위안부 문제 그리고 전쟁과 분단의 비극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고 현재 진행형의 과제로 남아 있으며, 과거의 문제가 왜 아픔의 역사인지, 왜 해결해야만 하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부여한다. ‘그 여자네 집’에서 ‘만득이’와 ‘순애’가 겪었던 삶의 고통은 그 시작이 개인의 사랑과 좌절이라는 ‘운명’으로부터 시작하지만 민족과 사회 전체의 문제로 확장해서 해석할 여지가 있다.

13. <보기>의 밑줄 친 어휘들 가운데 문맥적 의미가 다른 하나는?

<보기>

불문곡직하는 직설은 사람을 찌른다. 깜짝 놀라게 해서 제압하는 방식이다. 거기 비해 완곡함은 땀을 들이면서 애두른다. 듣고 읽는 이가 비껴갈 틈을 준다. 그렇다고 완곡함이 곡필인 것도 아니다. 잘못된 길로 접어들도록 하는 게 아니라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 곱씹어볼 말이 사라지고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이 군림하는 세상은 살풍경하다. 말과 글이 세상을 따라갈진대 세상을 갈아엎지 않고 말과 글이 세상과 함께 아름답기는 난망한 일인가. 아마 아닐 것이다. 막힐수록 옛것을 더듬으라고 했다. 물태와 인정이 극으로 나뉘는 세상에서 다산은 선인들이 왜 산을 바라보며 즐기며 그 흥취의 반을 항상 남겨두는지 궁금했다. 그는 미인을 만났던 사람이 적어놓은 글에서 그 까닭을 발견했다. 그가 본 글은 이러 했다. ‘얼굴은 아름다웠으나 그 자태는 기록하지 않았다.’

- ① 틈 ② 공간
- ③ 여지 ④ 세상

정답 ④

[정답 풀이]

‘불문곡직하는 직설’과 ‘완곡함’에 대해 쓴 글이다. 제시된 글에서 글쓴이는 ‘완곡함’이 듣고 읽는 이가 비껴갈 ‘틈’을 주고, 화자와 독자의 교행이 이루어지는 ‘공간’을 준다고 하였다. 한편 상상의 ‘여지’를 박탈하는 글은 살풍경하다고 하였으므로 이를 근거로 ‘여지’의 위상을 추리하면 상상의 ‘여지’가 남아 있는 글은 좋은 글이

된다. 그러므로 '틈'과 '공간'과 '여지'는 완곡함이 주는 긍정적 기능을 하는 어휘임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세상'은 물태와 인정이 '나뉘는' 곳이므로 완곡함이 주는 긍정적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문맥적 의미가 나머지와 다른 하나는 '세상'이다.

14. <보기>의 설명에 따라 올바르게 표기된 경우가 아닌 것은?

<보기>

-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ㄱ'이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거센소리로 적는다.
-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① 섭섭지
② 혼타

③ 익숙치
④ 정결타

정답 ③
[정답 풀이]
익숙치(×) ⇒ 익숙지(○):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에 의해 '익숙지'로 적어야 한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안울림소리 받침 뒤에서 나타난다.
[오답 풀이]
① 섭섭지(○): 한글 맞춤법 제40항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에 의해 '섭섭지'로 적는다.
② 혼타(○): 한글 맞춤법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ㄱ'이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에 의해 '혼타'로 적는다.
④ 정결타(○): 한글 맞춤법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ㄱ'이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에 의해 '정결타'로 적는다.

◆[정채영 문제종결자] 69쪽 29번 한글맞춤법 40항 적용 단어

[더 알아두기] 한글맞춤법 40항
제40항 어간의 끝음절 '하'의 'ㄱ'이 줄고 'ㅎ'이 다음 음절의 첫소리와 어울려 거센소리로 될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간편하게 ⇒ 간편케 연구하도록 ⇒ 연구토록 가하다 ⇒ 가타
다정하다 ⇒ 다정타 정결하다 ⇒ 정결타 혼하다 ⇒ 혼타
[붙임 1] 'ㅎ'이 어간의 끝소리로 굳어진 것은 받침으로 적는다.
않다, 않고, 않지, 않든지
그렇다, 그렇고, 그렇지, 그렇든지
[붙임 2] 어간의 끝음절 '하'가 아주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
거북하지 ⇒ 거북지 생각하건대 ⇒ 생각건대
생각하다 못하여 ⇒ 생각다 못해 깨끗하지 않다 ⇒ 깨끗지 않다
넉넉하지 않다 ⇒ 넉넉지 않다 못하지 않다 ⇒ 못지않다
섭섭하지 않다 ⇒ 섭섭지 않다 익숙하지 않다 ⇒ 익숙지 않다

15. <보기 1>의 사례와 <보기 2>의 언어 특성이 가장 잘못 짝지어진 것은?

<보기 1>

(가) '방송(放送)'은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하였다.

(나) '밥'이라는 의미의 말소리 [밥]을 내 마음대로 [법] 으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은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없다.

(다) '종이가 찢어졌어'라는 말을 배운 아이는 '책이 찢어 졌어'라는 새로운 문장을 만들어 낸다.

(라) '오늘'이라는 의미를 가진 말을 한국어에서는 '오늘[오늘]', 영어에서는 'today(투데이)'라고 한다.

<보기 2>

㉠ 규칙성
㉡ 역사성

㉢ 창조성
㉣ 사회성

- ① (가) - ㉠
② (나) - ㉡
- ③ (다) - ㉢
④ (라) - ㉣

정답 ④
[정답 풀이]
(라)는 한국어와 영어에서 같은 의미를 가진 말을 각각 달리 표현한 것으로, 이는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언어의 자의성'과 연관되는 사례이다. 한편 ㉠ '규칙성'은 국어 문장은 일정한 규칙으로 짜여 있으므로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내고, 비문법적인 문장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고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답 풀이]
① (가) '방송(放送)'이 '석방'에서 '보도'로 의미가 변한 것은 언어의 역사성과 관련이 있다.
② (나) '밥'을 '법'이라고 개인이 마음대로 바꾸면 다른 사람들이 '밥'이라는 의미로 이해 할 수 없다는 것은 언어의 사회성과 관련이 있다.
③ (다) 어떤 문장을 듣고 그것을 토대로 새로운 문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언어의 창조성과 관련이 있다.

◆[정채영 문제종결자] 11쪽 2번 언어의 특성	
[더 알아두기] 언어의 특성	
언어의 기호성	언어는 일정한 의미(내용)를 일정한 음성(형식)으로 나타내는 기호임.
언어의 자의성	말소리와 의미 사이에는 필연적인 관계가 없음.
언어의 사회성	말소리와 의미 사이의 관계가 사회적으로 수용된 후에는, 어느 한 개인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음.
언어의 역사성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단어의 소리와 의미가 변하거나, 문법 요소에 변화가 생기기도 함.
언어의 분절성	언어는 물리적으로 연속된 실체를 분절적으로 쪼개어 표현함.
언어의 추상성	언어는 많은 구체적인 대상으로부터 공통의 속성만을 추출하는 추상화 과정을 통하여 개념이 형성됨.
언어의 창조성 (개방성)	무한한 문장과 글을 생성할 수 있는 특성으로서, 언어는 상상의 산물이나 관념적이고 추상적인 개념까지 창조적으로 표현할 수 있음.
언어의 규칙성	국어 문장은 일정한 규칙으로 짜여 있으므로 문법적인 문장을 만들어 내고, 비문법적인 문장을 문법적인 문장으로 고칠 수 있음. ⇒ 문법적 직관
언어의 체계성	언어는 음운 체계, 단어 체계, 문장 체계, 의미 체계, 담화 체계 등 단위마다 일정한 내적 체계를 이루고 있음.

16. <보기>의 밑줄 친 시어를 현대어로 옮길 때 가장 적절 하지 않은 것은?

<보기>

매운 계절의 ㉠챗죽에 갈겨

㉡마춤내 북방으로 휩쓸려오다

하늘도 그만 지쳐 끝난 고원

서리빨 칼날진 ㉢그우에서다

어데다 무릎을 꾸러야하나?

한발 ㉣재겨디딜 곳조차 없다

이러매 눈감아 생각해볼밖에

겨울은 강철로된 무지갯가보다

-이육사, 「절정」-

① ㉠: 채찍
② ㉡: 마침내

③ ㉢: 그 위
④ ㉣: 재겨 디딜

정답 ④

[정답 풀이]

㉔ '재겨 디딜'은 '발꿈치로 땅에 닿게 디딜'을 의미하는 말이다. 발 디딜 곳조차 없는 극한상황을 '재겨 디딜'이라는 시어로 형상화하고 있다. 1연에서 화자는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북방이라는 수평적 한계 상황으로 내몰렸다고 말한다. 2연에서 화자는 그 상황의 심각성을 수직적인 한계 상황으로 표현하고 있다. 3연에서는 극한적 상황의 한계를 나타낸다. 이렇게 극한 상황을 제시한 화자는 4연에서 극한에 내몰려 절망하고 체념하는 것이 아니라, 역설적 인식을 통해 희망이 있음을 재인식함으로써 극복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정채영 국어 문학] 99쪽 이육사 '절정'

[더 알아보기] 이육사 '절정'

일제의 가혹한 핍박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는 민족의 강인한 의지를 표현한 저항 시로, 육사의 지사적 정신과 의지가 잘 나타나 있다. 극한적 위기 상황까지 내몰린 시적 화자는 자신의 굳은 의지로 모든 극한 상황을 극복하고 초월적 자세를 취하는 고고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17. 밑줄 친 부분이 <보기>의 ㉠ '쇠항아리'와 의미가 통하는 시어로 가장 적절한 것은?

<보기>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누가 구름 한 송이 없이 맑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네가 본 건, 먹구름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네가 본 건, 지붕 덮은
㉠쇠항아리,
그걸 하늘로 알고
일생을 살아갔다.
닭아라, 사람들아
네 마음속 구름
찢어라, 사람들아,
네 머리 덮은 쇠항아리.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中-

- 조국아/한번도 우리는 우리의 심장/남의 발톱에 주어본 적/없었나니 (「조국」 中)
- 아사달과 아사녀가/중립의 초례청 앞에 서서/부끄럼 빛내며/맞절할 지니 (「찢대기는 가라」 中)
- 꽃피는 반도는/남에서 북쪽 끝까지/완충지대 (「술을 많이 마시고 잔 어젯밤은」 中)
- 마을 사람들은 되나 안 되나 쑥덕거렸다./봄은 발병 났다커니/봄은 위독하다커니 (「봄의 소식」 中)

정답 ①

[정답 풀이]

<보기>에서 '지붕 덮은 쇠 항아리'는 억압과 구속을 의미하며, 억눌려 살아야 했던 역사적 상황을 표현한 것이다. ①의 '발톱'도 '우리의 심장'을 억압하는 세력을 의미한다.

[오답 풀이]

- '초례청'은 어느 한쪽으로의 치우침이 없는 민족의 대화합의 장으로 이상적 상태를 의미한다.
- '완충지대'는 대립하는 나라들 사이의 충돌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한 중립 지대로, 남북의 이념 대립이 없는 평화로운 공간을 의미한다.
- '봄'이 위독하다는 것은 기다리는 '봄'이 오지 않는다는 것을 암시하는 소식을

말한다. 따라서 '봄'은 마을 사람들이 기다리는 이상적 상태를 의미한다.

[더 알아보기] 신동엽, 「누가 하늘을 보았다 하는가」

이 시는 '하늘'과 '먹구름', '쇠 항아리'의 대립적 시어를 통해, 구속과 억압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바르게 인식하여 자유와 평화의 세계로 나아갈 것을 촉구하고 있는 작품이다. 시적 화자는 너에게 '하늘'이 '먹구름'과 '쇠항아리'에 가려있는 줄도 모르고 일생을 살았다면서 그것을 "닭아라", "찢어라"라고 명령하고 있다. 이러한 명령적 어조를 통해 작가는 시적 대상에 대한 강력한 행동 변화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시적 화자의 굳은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18. 밑줄 친 부분의 발음이 현행 표준 발음법에서 표준 발음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은? (단, '·'은 장모음 표시임.)

- 비가 많이 내려서 물난리가 났다. - 물난리[물랄리]
- 그는 줄곧 신문만 읽고 있었다. - 신문[심문]
- 겨울에는 보리를 밟는다. - 밟는다[밤:는다]
- 날씨가 벌써 한여름과 같다. - 한여름[한너름]

정답 ②

[정답 풀이]

신문[심문](x) ⇨ 신문[신문](○): '신문'의 표준 발음은 [신문]이며 [심문]으로 발음하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신문을 [심문]으로 발음하는 것은 뒤에 오는 양순음의 조음 위치에 동화된 예이다. 이러한 조음 위치의 동화는 모두 필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수의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며, 표준 발음으로 인정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종성의 자음은 원래의 조음 위치대로 발음해야만 한다.

[오답 풀이]

- 물난리[물랄리]: 'ㄹ'과 'ㄴ'이 인접하면 'ㄴ'이 'ㄹ'에 동화되어 'ㄹ'로 바뀌게 되므로, '물난리'를 [물랄리]로 발음한 것은 바르다.
- 밟는다[밤:는다]: 받침 ㄱ(ㄱ, ㅋ, ㆁ, ㄷ), ㄷ(ㄷ, ㅌ, ㄴ, ㄹ, ㅁ, ㅂ, ㅅ, ㅆ, ㅈ, ㅊ, ㅊ, ㅊ, ㅊ)은 'ㄴ, ㅁ' 앞에서 [ㅇ, ㄴ, ㅁ]으로 발음하므로 '밟는다'를 [밤:는다]로 발음한 것은 바르다.
- 한여름[한너름]: 합성어 및 파생어에서, 앞 단어나 접두사의 끝이 자음이고 뒤 단어나 접미사의 첫음절이 '이, 야, 여, 요, 유'인 경우에는, 'ㄴ' 음을 첨가하여 [니, 나, 녀, 뇨, 뉴]로 발음하므로 '한여름'의 표준 발음은 [한너름]이 된다.

19. <보기>의 소설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아저씨가 중얼거렸다.
“혼자 주무시는 게 편하실 거예요.” 안이 말했다.
우리는 복도에서 헤어져서 사환이 지적해 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 헤어지기 전에 내가 말했지만,
“난 아주 피곤합니다. 하시고 싶으면 두 분이냐 하세요.”
라고 안은 말하고 나서 자기의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도 피곤해 죽겠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라고 나는 아저씨에게 말하고 나서 내 방으로 들어갔다. 숙박계엔 거짓 이름, 거짓 주소, 거짓 나이, 거짓 직업을 쓰고 나서 사환이 가져다 놓은 자리끼를 마시고 나는 이불을 뒤집어썼다. 나는 꿈도 안 꾸고 잘 잤다.
다음날 아침 일찍이 안이 나를 깨웠다.

- 물화된 도시의 삶이 만든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다.
- 주인공들은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
- 잠은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 하는 매개체다.
- 화투는 절망과 권태를 견디는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

정답 ③

[정답 풀이]

첫 부분에서 “혼자 있기가 싫습니다.”라고 말하는 아저씨를 혼자 두고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갔다는 것은 단절된 공간이 주는 소외감을 나타내기 위한 문학적 장치이다. 그러한 방에서 “나는 이불을 뒤집어쓰고 꿈도 안 꾸고 잘 잤다”고 하였다. 이는 인간적 유대가 없는 개인주의적 사고를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잠이 현실을 초월한 삶에 대한 강렬한 동경을 환기 하는 매개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 풀이]

- ① “난 아주 피곤합니다”라는 대사와 “나란히 붙은 방 세 개에 각각 한 사람씩 들어”가는 행위를 통해 비정함, 절망감, 권태 등이 바탕에 깔려 있음을 알 수 있다.
- ② 주인공들이 자기 지위나 이름을 버린 익명적 존재로 기호화되어 있다는 것은 등장인물의 이름이 없이 ‘나’와 ‘안’ 그리고 ‘아저씨’로 명명한 것을 근거로 알 수 있다.
- ④ “화투라도 사다가 놀시다.”라고 제안한 것은 권태로운 시간을 때우기 위해서이다. 따라서 화투를 의미 없는 놀이의 상징으로 볼 수 있다는 설명은 적절하다.

◆[정채영 문제종결자] 261쪽 56번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더 알아보기] 김승옥, ‘서울, 1964년 겨울’

이 소설은 도시화에 따른 개인주의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서울’을 배경으로 보여준다. 세 남자가 선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대화를 나누는데 ‘나’와 ‘안’은 자신들의 진심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 그런데 삼십 대의 외판원 사내는 자신의 모든 것을 얘기하면서 자신의 고뇌와 비애를 공유할 것을 간청한다. 그러나 자신만의 세계에 틀어박힌 ‘나’와 ‘안’에게 그 사내는 부담스러운 존재일 뿐이다. 세 사람이 여관으로 와서도 각각 다른 방을 쓰게 되고 ‘안’의 경우 외판원 사내가 자살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하면서도 이를 말리지 않는 사실에서 인간적 유대가 없는 현대 사회의 소외는 극대화되면서 인간관계의 단절로 이어짐을 알 수 있다.

◆[정채영 국어 문학] 338쪽 이항 도산십이곡

[더 알아보기] 현대어 풀이

- ① 십 년을 갈아 온 칼이 칼집 속에서 우는구나./관문을 바라보며 때때로 그 칼을 만져보니./대장부가 나라를 위해 큰 공을 세워 영광을 임금께 드릴 날이 그 언제인가?
- ② 아홉 번째 계곡은 어디인가? 문산(文山)에 한 해가 저물도다./기암과 괴석이 눈 속에 묻혔어라./세상 사람들은 와 보지도 아니하고 좋은 경치가 없다고 하더라.
- ③ 강호에 겨울이 찾아오니 눈의 깊이가 한 자가 넘는다./삿갓을 비스듬히 쓰고 도롱이를 둘러 덧옷을 삼으니/이 몸이 춥지 않게 지내는 것도 역시 임금의 은덕이다.
- ④ 성현도 날 못 보고 나 또한 성현을 뵈지 못하네./성현을 못 뵈어도 그분들이 가던 길이 앞에 있네./가던 길이 앞에 있는데 아니 가고 어찌할 것인가?

20. <보기>의 밑줄 친 부분과 가장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보기>

성현의 경전을 읽고 자기를 돌이켜 보아서 환히 이해 되지 않는 것이 있거든 모름지기 성현이 준 가르침이란 반드시 사람이 알 수 있고 행할 수도 있는 것에 대하여 말한 것임을 생각하라. 성현의 말과 나의 소견이 다르다면 이것은 내가 힘쓴 노력이 철저히 못한 까닭이다. 성현이 어찌 알기 어렵고 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를 속이겠는가? 성현의 말을 더욱 믿어서 딴 생각이 없이 간절히 찾으면 장차 얻는 바가 있을 것이다.

- ① 십년 ㄱ온 칼이 갑리(匣裏)에 우노미라.
관산(關山)을 바라보며 새새로 문져 보니
장부(丈夫)의 위국공훈(爲國功勳)을 어니새에 드리울고.
- ② 구곡(九曲)은 어드미고 문산(文山)에 세모(歲暮) 커다.
기암괴석(奇巖怪石)이 눈속에 못쳐세라.
유인(遊人)은 오지 안이호고 불췌엿다 흐드라.
- ③ 강호(江湖)에 겨월이 드니 눈 기피 자히 남다.
삿갓 빗기 쓰고 누역으로 오슬 삼아,
이 몸이 춥지 아니희웁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④ 고인(古人)도 날 못 보고 나도 고인 못 뵈.
고인을 못 봐도 녀든 길 알피 잇너.
녀든 길 알피 잇거든 아니 녀고 엇절고

정답 ④

[정답 풀이]

밑줄 친 부분이 의미하는 것은 성현의 경전을 읽고 행하면 얻는 바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가까운 내용을 담은 시조는 학문 수양의 자세를 노래한 ④이다. ‘도산십이곡’은 조선 명종 때 이항이 지은 연시조로서, 전 6곡[언지(言志)]은 자연에 동화된 생활을 하면서 사물에 접하는 감흥을 노래한 것이고, 후 6곡[언학(言學)]은 학문 수양에 임하는 자세를 읊은 것이다.

[오답 풀이]

- ① 장부의 위국충절을 나타낸 이순신의 시조이다.
- ② 이이 고산구곡가 중 한 수로 아름다운 자연의 경치를 알지도 못하고 화려한 것만 추구하는 세태를 풍자하였다.
- ③ 안빈낙도를 노래한 맹사성의 강호사시가 중 한 수이다.